

1. 수능 전형

전형명	학년도	학년 제한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일반전형	2017	없음	수능 100 ※ 전 모집단위(예체능 제외) 수능 한국사 5% 반영	X
일반전형	2018	없음	수능 100 ※ 전 모집단위(예체능 제외) 수능 한국사 5% 반영	X

■ 정시모집 수능 반영 방법

전형명	학년도	모집 군	모집단위	영역별 반영 비율(%)								활용점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	나		사탐	과탐	과목 수		
일반전형	2017	가/나	인문	30	-	25	25	15	-	2	5	표준 + 백분위
			사회	20	-	35	25	15	-	2	5	
			예체능	40	-	-	40	20		1	-	
			자연	20	35	-	20	-	20	2	5	
일반전형	2018	가/나	인문	35	-	25	15	20	-	2	5	표준 + 백분위
			사회	25	-	35	15	20	-	2	5	
			예체능	50	-	-	20	30		1	-	
			자연	20	35	-	15	-	25	2	5	

주)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사회탐구 2과목 중 1과목 성적으로 대체 가능, 예체능계열은 탐구영역 중 상위 1과목 반영

- 2018학년도 영어 등급별 점수

모집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인문/자연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 한국사 등급별 점수

모집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인문·사회	200	200	200	195	190	185	180	175	170
자연	200	200	200	200	194	188	182	176	170

👁️ 전형 자세히 보기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에 따라 정시에서 지난해 영어 반영 비율이 인문·사회 25%, 자연 20%였는데 올해에는 인문과 자연계열 모두 15%를 반영하되, 등급에 따라 9등급 환산성적표를 활용한다. 1등급 200점, 2등급 192점, 3등급 178점 등으로 등급 간 점수 폭이 타 대학 대비 큰 편이다. 영어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대단히 불리하므로 영어 등급별 점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은 국어 반영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높아졌다. 인문계열은 국어 반영비율이 35%로 가장 높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좋은 수험생에게 대단히 유리하다. 반면 사회계열은 수학 반영비율이 가장 높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35% 반영하므로 수학 성적이 좋은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회계열 지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